

4월 9일날 왜 백숙을 먹나요?

Q 4월 9일이 왜 “White day” 인가요?
4월 9일날 왜 백숙을 먹나요?

A 사람이 장수할 때 축하연이 베풀어지는데 회갑(回甲 : 61세), 고희(古稀 : 70세), 백수(白壽 : 99세) 등으로 구분합니다.

백수(白壽)는 백살(百歲)에서 한 살(一歲)을 뺀 나이로써 99살(白歲)에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.

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3월 14일을 'White day'라고 하여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데요.

이 'White day'를 재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이상진 전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. 이상진 전 원장은 우리 고유의 white day(白日)는 4월 9일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.

White day, 즉 백일(白日)은 1년중 1백번째 날(百日)에서 하루(一日)를 뺀 날짜로서 1월 1일에서 99일째 되는 날, 즉 4월 9일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백일(白日 : White day)이라는 것입니다.

백일(白日)인 4월 9일은 'White day'로 이날 만큼은 백색육(white meat)인 닭고기를 백숙(白熟)으로 먹자고 제안한 것에서 'White day'를 재해석한 것이지요.



White day

백일(白日 : white day : 4월 9일)에 White meat인 닭고기를 백숙(白熟)으로 먹고, 구구일(chicken day : 9월 9일)에 닭고기 요리를 먹을 때 여러분들도 백수(白壽 : 99세)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 